베트남 투자뉴스

kotra
하노이무역관

제759호, '21.6.14.

VIETNAM INVESTMENT NEWS

베트남 투자뉴스 제759호

안녕하십니까,

KOTRA 하노이무역관의 베트남 투자뉴스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뉴스 본문은 상단의 PDF 첨부파일을 클릭 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759호 (6월 14일자)주요 내용은 우측 헤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KOTRA 하노이무역관

담당자 | 한아름 대리
연락처 | +84 24 3946 0511 (621)
이메일 | rachel@kotra.or.kr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 3

- 박장성, 코로나19 백신 15만 회 접종 완료
- 베트남, 코로나19 악재에도 대규모 FDI 자본 유입
- Pegatron, 베트남에 약 10억 달러 추가 투자 결정
- 상위 50개 베트남 상장기업 전년대비 시가총액 8.7% 증가
- 韓기업, 베트남 동나이성 투자 45개국 기업 중 투자규모 1위
- 베트남, 동남아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위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 뉴스 ····· 5

- 베트남 병 생수시장의 키워드는 친환경과 고급화

베트남 통관법률 및 FTA관련 Q&A ····· 6

- 금주의 통관 Q&A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 7

- 2021년 5월 5일 업데이트

노동허가 이슈 관련 베트남 정부 답변 ····· 11

- 한-베 공동으로, 당초 5월 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노동허가 이슈 관련 간담회 개최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 연기되어 관련 답변을 정리 및 첨부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박장성, 코로나19 백신 15만 회 접종 완료

박장성 보건부는 박장성 산업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지 5일 만에 총 15만회의 코로나19백신을 접종 완료했다 밝힘. 또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임시로 조업을 중단했던 박장성 소재 공단중에서도 방역 프로토콜 기준에 맞는 업체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조업을 재개함, 7일 오전 기준 박장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수는 3,113명을 기록함.

[VTV, 6.7.]

자료: VTV

베트남, 코로나19 악재에도 대규모 FDI 자본 유입

애플 협력사인 Foxconn은 타잉화 성에 13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 설립을 고려 중이며 러시아의 AVG Capital Partners 는 타잉화 성 인민 위원회와 14억 달러 규모의 양돈 농장 및 가공 공장들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함. 또한 5개 FDI 기업이 빈즈엉 성에 총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 빈즈엉 성의 승인을 받음. 투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음 ▲ Taiwan's Far Eastern Group (6억 1,000만 달러) ▲Cheng Loong Group (1억 달러) ▲ P&G (4,480만 달러) ▲New Motion Private Company Limited (1억 8,400만 달러) ▲ECPVN Binh Duong 프로젝트 (3,440만 달러) 등임.

[nhandan, 6.7.]

애플·MS 협력사인 Pegatron, 베트남에 약 10억 달러 추가 투자 결정

Apple, Microsoft, Sony의 주요 공급 업체인 Pegatron 은 하이퐁 Nam Dinh Vu 산업 단지에 있는 생산시설에 $10억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함. Pegatron은 또한 2026~2027년 사이에 중국의 R&D 센터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임. 또한 작년 9월에도 $10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 1월에는 하이퐁에 $2,290만 규모의 공장 부지를 매입한 바 있음.

[VTV 6.9.]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 이슈

포브스 선정 상위 50개 베트남 상장 기업 전년 대비 시가총액 8.7% 증가

하노이 증권 거래소 (HNX)와 호치민 증권거래소 (HOSE)에 상장된 상위 50개 기업들의 시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여 1,219조 베트남동 (531억 1,000만 달러) 기록, 세후 순이익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75조 동을 기록함. 매출액 상위 기업에는 Vingroup, Mobile World, Hoa Phat Group 등이 있고, 신규 진입한 11개사 중에는 Hanoi Beer Alcohol and Beverage (Habeco), BIDV, Becamex IDC Corp 등이 있음.

[Vnexpress, 6. 9.]

한국 기업, 베트남 동나이 성 투자 45개국 기업 중 투자규모 1위

2019년 한 해 한국 기업의 동나이 성 투자 규모는 6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 5개월 동안 추가로 5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2021년 5월 한국 기업의 동나이 성 투자규모는 총 70억 달러를 기록함. 한국은 동나이 성에 투자한 45개국 기업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투자국 1위에 오름. 주요 투자 기업은 다음과 같음 ▲ 창신그룹 (Tan Phu 공단에 1억 달러) ▲ 한솔 테크닉 (Ho Nai 공단에 1억 달러) ▲ 인탑스 (Amata 공단에 3,000 만 달러) 등임. 한편, 한국은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동나이 성의 수입국으로 동나이 성의 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직물, 의류, 신발, 컴퓨터, 전자 부품, 장비, 도구 등을 생산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며, 월 평균 2억 달러 이상을 지출 하는 것으로 알려짐.

[Vietnam Investment Review 6.9.]

베트남, 동남아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1위

페이스북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촌지역 페이스북 사용자는 메신저와 비디오 기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닛케이아시아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교신한 메시지 수를 바탕으로 최대 교신 메시지 수를 기록한 국가는 베트남과 태국으로, 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라 보도함. 2020년 기준 베트남 전체 인구 9,800만명 중 농촌인구는 약 6,200만명으로, 페이스북은 도시 거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용 비율은 2020년~2025년 5년간 연 평균 2% 증가에 머무는 반면 농촌 거주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사용 비율은 연평균 7%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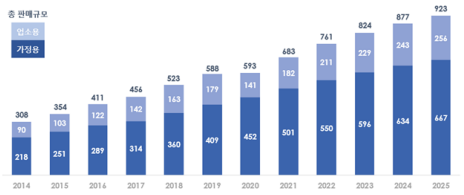
[Vnexpress 6.9.]

베트남 FOCUS - KOTRA 해외시장뉴스

베트남 병생수시장의 키워드는 친환경과 고급화

- 2020년 생수시장 규모 5억9300만 달러, 정제수보다 먹는 샘물 관심 증가 -
- 신 환경보호법 2022년 발효 예정, 그린 마케팅을 펼치면 도움이 될 것 -

시장 규모 및 전망 및 시장 동향



자료: Statista(2021.5.)

Statista는 2020년 베트남의 생수 시장규모가 가정용 4억5200만 달러, 업소용 1억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85% 성장한 총 5억9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베트남 생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2% 성장할 전망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7.81% 성장할 전망이다.

고품질 생수에 관심

과거 베트남 소비자들의 경우 정제수는 그냥 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생수 정제 및 생산 기술의 발전, 먹는 샘물의 개발,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는 소비자의 물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2020년 기준 가정용 먹는 샘물 탄산수는 전년 대비 7.8% 성장한 1240만 리터가 판매됐으며 정제 탄산수보다 3.7%p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먹는 샘물 및 먹는 샘물 탄산수의 성장률은 베트남 사람들의 음용수에 대한 관심이 정제수에서 먹는 샘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용 생수 판매량의 증가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식당이 문을 닫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비율 또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정용 물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2% 성장했으나 업소용 물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첨단 생산시스템 및 해외 표준인증에 투자하는 기업들

PepsiCo의 Aquafina는 생산공장에 7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쳐 물을 여과하는 HydRO-7™ 시스템을 갖췄으며, Nestle의 Lavie는 Hung Yen과 Long An에 있는 두 개의 생산 라인 투자와 발전에 주력하며 고품질의 먹는 샘물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Laska는 100% 스위스 자본 투자회사로 유럽 표준 생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Laska에서 생산하는 먹는 샘물은 자외선 살균과정을 포함한 12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친다. Laska는 미국 식약청(FDA)이 제시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국제 생수협회(IBWA)의 일원이기도 하다.

Lavie의 환경을 위한 노력

Lavie는 호텔 및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한 병을 100% 회수해 총 8단계의 재활용 단계를 거쳐 재생산한다. Lavie는 유리 생수병 8단계 100% 재활용 과정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Nestle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를 다 한다는 그린 프로모션에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생수병의 경우 재활용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 중반부터 La Vie는 플라스틱 먹는 샘물 병 350ML, 500ML, 1.5L를 기존 하늘색에서 투명색으로 변경했다. 2019년 8월 말부터는 병뚜껑 수축 필름이 수집되고 재활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축 필름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사점

고급화와 세분화 예상

Aquafina, Lavie와 Dasani는 베트남 생수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이미 브랜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Lavie는 San Pellegrieno나 Alba처럼 병 탄산수로 유명한 제품을 벤치마킹해 고급 유리병 생수 시장에 뛰어들었다. 베트남의 생수시장은 기존 주요 생수업체가 3파전을 이루면서 향후 일부 고급 생수 브랜드들이 시장을 세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산수와 가향 탄산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반 생수 및 먹는 샘물보다 천연 광천 탄산수 및 가향 탄산수 등으로 진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수입 유통방법을 선택하고 진출해야

베트남 생수시장에 한국 생수를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 유통업자를 통해서 유통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유통 판매 법인을 설립해 유통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지 유통업자와 1년 정도 계약을 한 후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린 마케팅에 초점

한국에서는 최근들어 플라스틱 병생수에 압축 플라스틱 라벨지를 제거한 무라벨 병생수가 유행이다. 한국의 각종 생수 브랜드 및 PB병 생수는 기존의 압축 플라스틱 라벨지를 제거하고 음각으로 상품명을 새긴 무라벨 생수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베트남에서는 Lavie가 선발 주자로 무라벨 병 생수제품 출시를 했다. 베트남 역시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베트남 신규 환경 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생산자 재활용 책임(EPR)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생수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그린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무라벨 생수 출시 및 공병 재활용 등의 캠페인을 펼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 베트남 수입통관과 부가가치세 **

Q : 수입통관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처리 및 환급 방법은?

A : 부가가치세는 내국 소비세의 일종으로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는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은 수입 후 베트남 국내에서 사용, 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부과징수 되는 것이며 이후 국내판매 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고 분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됩니다(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 국내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됩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지불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관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공급받는자에게 부과된 매출부가세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입부가세의 공제를 위해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후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입 당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가 부담하고 사용한 것으로 **환급 없이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2) 수입 후 국내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최종 소비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판매 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입시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므로, 해당 세액 만큼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될 것이며 **사실상의 환급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3) 수입 후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수출에 대한 납부세액이 0이 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존재하므로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게되어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에게 **해당분기 실제 환급이 진행되기보다는 추후 환급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유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제 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하노이 무역관 김태윤 관세사 -

2021년 5월 5일 기준

대 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4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4.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9,049	71,578.13	120.00	248.65	1,483.73
일 본	4,690	62,911.19	54.00	1,796.34	2,513.69
싱가포르	2,681	61,461.68	56.00	4,413.80	4,846.01
대 만	2,807	33,861.02	20.00	75.74	174.82
홍 콩	1,970	26,692.62	31.00	774.91	867.27
버진아일랜드(영)	870	22,190.61	8.00	78.75	146.29
중 국	3,192	19,629.00	61.00	576.19	1,082.49
말레이시아	647	12,947.27	3.00	8.56	21.41
태 국	611	12,730.07	4.00	53.86	163.72
네덜란드	374	10,337.39	6.00	86.26	136.00
미 국	1,093	9,571.60	15.00	148.77	180.99
전체 합계	33,294	393,325.49	451	8,456.17	12,251.11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대 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구분		2021. 4.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4.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280	231,167.91	175	2,408.04	5,189.40
2	부동산경영	953	60,925.45	17	579.16	778.42
3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163	33,561.52	13	4,990.52	5,058.39
4	호텔, 외식서비스	893	12,521.70	4	0.35	36.22
5	건설	1,756	10,681.80	8	4.62	9.81
6	도소매,유지보수	5,296	8,805.32	124	284.78	464.29
7	물류운수	884	5,498.99	14	125.04	158.05
8	채광	108	4,897.76	-	-	1.21
9	교육, 양성	592	4,419.71	8	7.40	39.17
10	정보통신	2,355	4,010.26	30	4.39	40.59
11	농,임,수산	503	3,683.19	1	7.65	71.59
12	예술 오락	137	3,391.27	-	-	0.21
13	기술과학전문	3,583	3,835.02	49	41.82	288.59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897.03	1	1.01	16.53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1.19
16	행정, 지원 서비스	497	977.10	7	1.38	8.01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1.73
18	금융, 은행, 보험	78	784.19	-	-	49.39
19	기타산업					
합계		33,463	394,916.75	451	8,456.17	12,251.11

(단위 : US$백만)

자료원 :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 분	2018	2019	2020	2021.4
수 출	2,447.2	2,634.5	2,814.7	1,039.0
수 입	2,375.1	2,535.0	2,624.0	1,026.0
무역수지	72.1	99.5	191	13.0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18,371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9,506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15,853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12,001
신발류	16,297	18,299	16,551	6,392
수산물	8,831	8,572	8,384	2,386
목제품	8,855	10,526	12,323	4,988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3,453
철강제품	4,558	4,160	3,035	2,674
채소	3,822	3,764	3,259	1,347
기 타	67,951	71,337	76,793	26,930
합 계	243,483	264,189	281,471	103,901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4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22,047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14,83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6,012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4,231
철강제품	9,896	9,485	4,526	3,732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3,805
유류제품	7,614	1,047	1,056	395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2,822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2,567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741	5,886	5,316	2,080
기 타	86,801	98.960	100,175	40,081
합 계	236,687	253,070	262,407	102,607

자료원 : General Statistics Office/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22,235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12,594
3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4,883
4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5,174**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2,872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1,911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1,696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1,710
9	영 국	5,424	5,776	5,758	4,955	1,468
10	태 국	4,786	5,494	5,272	4,917	1,452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22,406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78,401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24,338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12,644**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5,207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4,996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3,723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3,157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2,125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1,649
9	싱가포르	5,301	4,524	4,091	3,670	1,040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1,582
	기 타	38,395	46,523	48,341	49,833	15,146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75,607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3
수 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12,764(6.3)
수 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5,836(11.1)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6,928

자료원 : KITA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2,998(-7.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2,410(30.8)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800(-1.2)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559(-1.5)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240(-16.5)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525(28.7)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264(-14.2)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201(-2.5)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287(0.6)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211(-14.1)
기 타	18,808	15,874	16,187	14,998	4,269
합 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12,764(6.3)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3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1,365(-3.7)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845(4.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109(-55.6)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335(9.1)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186(20.0)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608(148.1)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136(11.9)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172(33.0)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134(-6.2)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134(29.8)
기 타	5,279	6,197	6,330	6,473	1,812
합 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5,836(11.1)

자료원 :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1. 노동허가 관련 제152호 시행령 개정요청

<Q> 노동허가(work permit)는 근로자 개개인의 인권과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베트남의 경쟁력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근 개정시행령(152/2020/ND-CP)은 전문가 인정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 관련 대학전공 및 관련 경력 해석 등 기업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므로, 투자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차원에서 동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각부처・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받아 컨센서스를 형성하여 개정되었고, 각 기업의 불편함과 애로는 시행령이 최근(2.15) 시행됨에 따른 적응과정으로 생각함. 특히 베 정부는 고학력 또는 자격증을 가진 우수 외국인력의 고용을 희망함. 따라서 당분간 제152호 시행령 재개정은 곤란하나 향후 FDI기업 등의 의견을 받아 재개정을 검토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 대사관은 각국 대사관 및 코참, 코트라, JCCI 등 각국 유관기관과 함께 동 시행령의 재개정을 베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음

2. 전문가인정서 효력 거부

<Q> 한-베 전문가인정 MOU*('13.12 체결)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전문가인정서의 효력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한국근로자의 해외 취업의 장애 발생. 우리대사관은 베 정부에 MOU 근거규정*** 마련 요청

* 동 MOU에 따라 학력・경력이 없어도 ①한국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②K-Move 스쿨 수료자, ③공공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자의 경우, 베 정부는 '전문가'로 인정하여 노동허가 발급

** (구)시행령(11/2016/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a)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문서가 있는 자

*** (개정)시행령(152/2020/ND-CP) 3조3항. 전문가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c)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베 정부> 베 정부의 우수 외국인력 채용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한-베 전문가인정서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양해바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K-Move 스쿨 등 정부운영 해외취업과정에 대해 전문가/운영감독자 증명서 발급 및 경력인정 가능성 등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3. 전문가 인정요건 강화

<Q> 전문가 인정의 자격조건 강화(학사학위+경력3년, 또는 자격증+경력5년)로 인한 조건 충족의 어려움

<베 정부> '전문가'로만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관행이 문제. 학력/경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각 요건충족 시 '전문가'가 아닌 '관리자', '운영감독자' 또는 '기술자'로도 노동허가* 신청 가능

* 관리자: 기업을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조직의 대표자・부대표자, 별도 인정요건 없음
운영감독자: 기관・기업 등의 직속 부서(과, 팀 등)를 운영하는 부서장, 별도 인정요건 없음
기술자: 훈련1년+경력3년 또는 경력5년

4. 베트남 내 경력 불인정

<Q> 전문가 경력은 해외 근무경력만 포함되고 베트남 내 경력은 제외되고 있다는 민원 발생(하노이, 호치민, 하남 등). 그로 인해 실제로 베트남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베 정부> 베 근무경력 제외는 오해임. 시행령 제9조제4항b호에 따라 '전문가'는, "베트남 근무경력기간에 대해 외국 기관・조직 및 기업의 확인" 필요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대사관은 우리근로자의 베트남 근무경력에 대한 인증방안을 우리정부와 협의 중(향후 별도 안내 예정)

5. 전공 불일치

<Q>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력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전공과 다르다고 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대학전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현장혼란이 발생. 예컨데, 인사담당자가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경우, 홍보를 전공한 경우 등은 관련 대학전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베 정부> 관련 학위나 관련 경력은 폭넓게 해석・인정될 수 있음. 예컨대, 베트남어를 전공한 자가 회계업무 전문가로 노동허가를 신청한 경우, 대학에서 회계업무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음을 증명하면 관련 학위로 인정되고,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예정된 전문가가 업무명칭(예컨대 행정담당, 홍보담당 등)과 무관하게 과거 업무 중 회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한편, 만약 학위증에 전공이 없거나 단지 문학사, 어학사 등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성적증명서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음

노동허가 이슈 관련 애로・건의에 대한 베트남정부 구두답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6. 한국의 졸업증명서 효력 부인

<Q> 한국에서는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고, 과거에는 베 지방정부도 대학졸업증명서를 대학학위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부지방정부는 대학졸업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함

<베 정부> 대학졸업증명서가 대학 학위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으며, 문제가 있는 지방성을 알려주면 직접 이슈를 해결하겠음

<대사관 추가안내> 우리정부(교육부)도 한국의 졸업증명서가 대학학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공식의견을 베 정부(노동보훈사회부)에 기발송

7. 대표사무소와 외국인기업연합회 노동허가 발급 소재지 변경 요청

<Q> 호치민 등 남부지역 주재 외국인기업연합회와 대표사무소들은 현재 노동보훈사회부(하노이 소재)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에 해당 시・성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함

<베 정부> 현재 온라인으로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남부지역 주재 외국기업연합회 등은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8. 행정 절차의 불명확성 등

<Q> 담당자가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한 절차(서류 등)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없고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다름으로 인한 혼선유발 및 발급 소요 기간 지연

또한 현재 다수 지방성에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노동허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건의함

<베 정부> 개정시행령이 최근('21.2.15)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초기 혼란으로 생각함. 지방정부 해석이 중앙정부(노동보훈사회부)와 다를 경우, 이러한 이슈는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정부를 지도하겠음. 또한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된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통해 향후 행정절차 등 한국기업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안내하겠음.

***당초 5월중순 베트남 북부(하노이, 하이퐁), 남부(호치민) 한-베 고용노동 공동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이후로 잠정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